제주섬 기후환경이 민간신앙에 미친 영향

윤용택(제주대)

1. 들어가는 말

인간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지만 그것을 자신의 처지에 맞게 변형하면서 살아간다.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나누어 갖고 있는 행위나 신앙의 유형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그 지역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소산이다. 인간은 자연환경을 변형할 뿐만 아니라 외부문화도 변형하여 수용하기 때문에 주어진 자연환경과 유입되는 외래문화가 지역민의 행위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로부터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문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제주섬의 자연환경적 특징과 더불어 한반도 문화, 더 나아가서는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제주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도 살펴야 한다.

제주섬은 우리나라 여러 섬이 공유하고 있는 도서(島嶼)생태계의 특성을 보이면서도, 섬 중앙에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이 있고 온대와 아열대의 전이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다양한 식생분포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바람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듯한 다우지역이라는 기후환경을 감안할 때 제주문화가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탐라가 12세기초에 고려로 편입된 이후 중앙집권화 시책에 따라 제주사회가 자치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제주문화의 기본적 골격은 한국문화의 전체적 맥락과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문화를 이해할 때 도서적(島嶼的) 성격뿐만 아니라 제주가 직면한 사회환경, 즉 한반도 문화의 영향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1)]

자연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지만 때로는 건강과 목숨을 앗아가기 하기 때문에 순응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이고 한편으론 경외(敬畏)의 대상이기도 하다.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없던 전근대인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개체적 생명체들, 물, 바람, 흙, 바위 등과 같은 무기물, 그리고 대지, 산, 바다, 강 등과 같은 집합체에게 영(靈)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그것들이 질병과 죽음을 초래하고 건강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준다고 믿었고 제례의식을 통해 기복(祈福)과 제액(除厄)을 염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미즘(Animism)과 샤마니즘(Shamanism)은 자연재해나 질병이 많은 열악한 자연환경을 지닌 곳일수록 강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섬은 온대와 아열대의 전이지대에 있는 화산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바람이 강하고, 비가 많으며, 가뭄이 심한 삼재(三災: 風害, 水害, 旱害)의 섬이라 불릴 만큼 재해가 많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해안지대에는 일평균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일 년 내내 미생물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防疫)이 미비하던 시절엔 질병위험이 상존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제주인들은 여느 전근대인들처럼 자연물에도 신(神) 또는 영(靈)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제주에는 옛날부터 음사(淫祀)를 숭상하여

1) 이기욱, 「환경과 제주문화」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75쪽.

산의 숲, 하천과 못, 언덕, 무덤, 물가 등의 나무나 돌에 신사(神祀)를 만드는 풍속이 있다.”는 기록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기록은 조선 중기(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이후로 제주에 파견되었던 목사(牧使)나 유배인의 여러 제주풍토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 진성기에 따르면, 1960년경에 제주섬에는 300여 개 신당(神堂), 400여명 심방[巫覡], 500여 편 본풀이(무속신화), 1만 8천신이 남아 있었다.[3] 그리고 개명천지한 오늘날까지도 제주섬에는 무속신앙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이처럼 제주섬이 다른 지역에 비해 무속이 강한 데는 열악한 자연환경과 온난다습한 기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신들의 고향이 할 만큼 제주섬에 신과 신화와 무속의례들이 많았던 까닭은 인간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이 열악했던 탓이라는 것이다.

태풍, 홍수, 가뭄, 해일 등의 재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고,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미생물 감염에 의한 것이라 알게 된 것은 과학적 이해가 깊어진 근대 이후의 일이다. 하지만 재해와 질병은 인간의 생사와 존망에 걸린 문제였기에 옛 제주인들은 신들의 내력담인 본풀이나 역(易)과 음양오행(陰陽五行) 사상에 바탕을 둔 도참서(圖讖書)에서 재해와 질병의 근거를 찾았고, 그것을 토대로 초복(招福)과 제액(除厄)을 위한 의례를 행했고 길(吉)한 날과 방위를 택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제주섬의 민간신앙도 인류문화의 보편성과 기후환경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주섬의 민간신앙도 한반도와 대륙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주 민간의례에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유교, 불교, 도교, 무속 등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민간신앙과 기후환경의 밀접한 상관관계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제주섬과 상황이 비슷한 다른 지역과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주섬의 민간신앙과 기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제주섬의 기후환경의 특성

2.1 빈번한 자연 재해

제주섬의 기후는 크게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기단들, 온난건조한 대륙성열대기단인 양쯔강기단(봄.가을), 고온다습한 해양성열대기단인 북태평양기단(여름), 한랭습윤한 해양성한대기단인 오호츠크해기단(장마철), 고온다습한 해양성적도기단(태풍), 한랭건조한 대륙성한대기단인(겨울)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제주기상은 제주섬이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가운데에 거의 2000미터에 달하는 한라산이 솟아 있는 타원형의 화산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서 한반도와는 사뭇 다르다.

우선 제주섬은 산악(한라산, 오름)과 해양 등 지형적 영향으로 기온, 바람, 강우량 등에서 동서남북 기상변화와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특히 제주섬은 예로부터 삼다[風多, 石多, 女多], 삼재[風災, 水災, 旱災]의 섬이라 할 만큼 바람이 많다. 여름철의 태풍과 겨울철의 북서풍뿐만 아니라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하루에도 육지와 해양의 열용량 차에

2) 고찬화 편저, 『제주의 전설과 민요』, 디딤돌, 2004, 27쪽, 36쪽, 40쪽, 51-54쪽.
3) 진성기, 『복을 비는 사람들』, 디딤돌, 2008, 21쪽, 24쪽, 58쪽.

의한 해륙풍 순환 뚜렷하다. 연평균 풍속은 초속 3~6미터로 본토보다 1~2미터 강하며, 서부지역이 평균 풍속이 초속 6.9미터, 북부는 3.8미터, 동부와 남부지역는 3미터이고, 순간최대풍속(고산)은 초속 60미터로 기록된 바 있다.

강풍, 풍랑, 호후, 폭풍해일 현상 등을 동반하는 태풍이 일 년에 3개 정도 영향을 미치며 주로 7월~9월에 내습한다. 제주섬은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 태풍피해가 가장 심한 편인데, 지난 100년(1904-2005)과 최근 30년(1971-2000)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로 태풍의 횟수와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연평균 빈도 (단위 개)[4]

월 / 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연평균
1904 - 2005	.	.	.	.	2	20	89	119	78	8	.	.	316	3.1
1971 - 2000	.	.	.	.	.	8	29	38	24	3	.	.	102	3.4

제주섬 바람은 여름의 태풍 못지않게 겨울의 북서계절풍이 많은 피해를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인은 음력 2월에는 바람의 신인 영등할망이 오는 영등달이라 하여 바닷사람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영등굿을 하였다. 장주근은 제주섬의 영등굿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

> 제주도에서는 2월을 영등달이라고 하는데, 150여년 전 홍석모(洪錫謨)에 의해 저술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나, 500년 전 노사신(盧思愼)에 의해 편찬된『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도 대규모의 영등굿을 언급하여 "제주도의 풍속에는 이달(2월)에 배타는 것을 금기로 한다(濟州俗是月 禁乘船)"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강하게 금기를 내리고 있는 해양기상학적 관심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주도 통계연보의 기상관계자료를 보면, 실제로 태풍이나 그에 따른 피해는 주로 8월에 많고 2월에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 제주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2월 보름 되는 무렵 전후에는 대체로 소라, 전복, 떡조개, 고막 등 조개류의 속이 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과 영등굿의 '씨드림' 같은 것이 근원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어떻든 제주도 영등굿은 제주도는 지리성·해양기상·해녀사회가 그들의 생업과 끊임없이 함수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발생하여 전승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 영등신의 근원적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이해해 둘 수밖에 없을 듯하다.[5]

제주섬에서 태풍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태풍은 여름철에 내습하고, 아무리 큰 태풍도 2~3일이면 지나간다. 그리고 태풍은 워낙 강한 바람이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겨울의 북서풍은 인간의 주의 여하에 따라 그 피해를 줄일 수도 있는 바람이다. 제주섬의 평균 풍향의 분포는 북서~북풍 성향이 뚜렷하며, 특히 겨울철에 고산에서는 북풍이 40%, 성산포에서는 북서풍이 27%를 차지

4) 김상봉, 「제주도 연안해역의 폭풍해일고 산정」,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0쪽 참조.
5) 장주근, 「강인한 삶의 현장, 풍요에의 기원」『제주도 영등굿』(김수남 사진집), 열화당, 1992, 86쪽.

하고 있으며, 12월~익년3월까지 북서풍이 심하게 불고 있다.[6] 그러다보니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도 하절기보다는 기상특보 및 해양기상 급변이 심한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제주섬의 월별 폭풍주의보 발표 횟수(1983-1992)[8]

월 / 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83	3	2	5	5		1	3	3	1	1	3	2
1984	2	6	2	1	1	2	1	1	1	1	1	3
1985	4	7	3	4	2	3	4	3	2	4	5	4
1986	6	6	4	1		2		1	1	3	2	7
1987	7	6	5	5	2	1	2	4	4	4	4	5
1988	4	4	5	4	1	3	2	1	3	2	3	4
1989	5	4	3	2	2	5	3	1	3	3	4	3
1990	8	3	3	4	4	3	1	2	3	2	3	4
1991	2	4	4	4	2	3	4	4	2	1	1	3
1992	3	2	3	6	1	2		3	1	3	4	4
평균	4.4	4.4	3.7	3.6	1.5	2.5	2.0	2.5	2.1	2.4	3.1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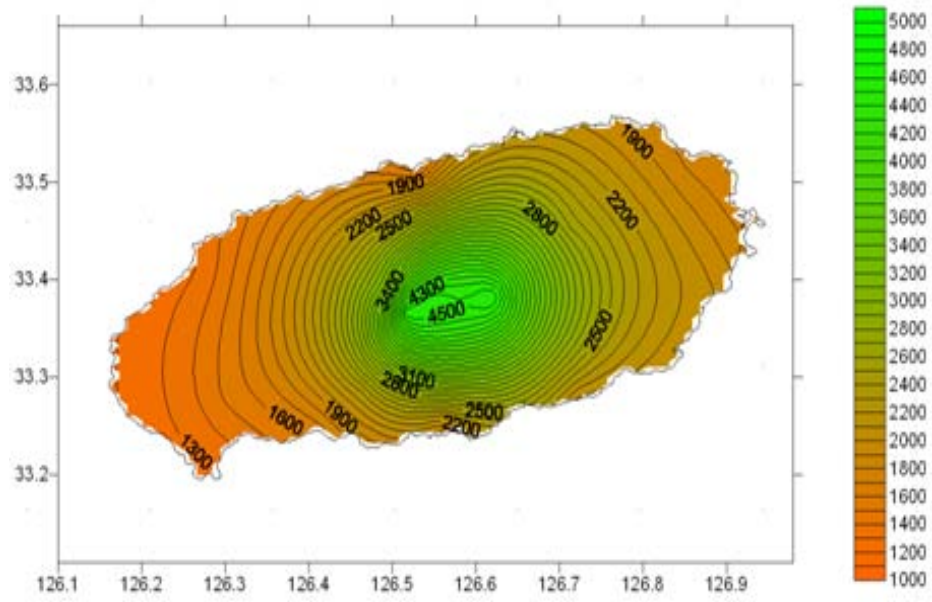
제주섬 땅에서는 일 년 중 2월초에 기온이 최저로 내려가고, 바다에서는 3월(음력 2월)을 전후하여 수온이 최저로 내려간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는 대한과 입춘 사이가 묵은 절기와 새 절기가 바뀌고, 바다에서는 바닷물의 비열로 한 달 쯤 뒤에 묵은 절기와 새 절기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제주인은 바람의 신인 영등할망은 영등달(음력 2월) 초하룻날 귀덕으로 바람을 몰고 들어와서 땅과 바다에 씨를 뿌리고 보름날 우도로 빠져나간다 하며, 제주칠머리당에서는 해마다 영등달 초하룻날이 되면 제주를 찾아오는 내방신인 영등신을 맞이하여 <영등환영제>를 하고, 열나흘날에는 영등신을 떠나보내는 <영등송별제>를 한다. 영등할망이 떠나가면 움추렸던 바다 겨울은 가고 바다의 새봄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 본다면 해상기상이 급변하여 조난사고 위험이 높고, 잡을 물건이 없는 영등달은 어부의 승선과 해녀의 물질을 금하면서 영등굿을 통해 새봄을 준비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태풍과 폭풍 다음으로 제주섬에 재해를 가져오는 것은 호우이다. 연강수량은 산간(4,000mm 내외), 남부(2,000mm 내외), 서부(1,200mm 미만) 등에서 지역편차가 대단히 심한 편이다. 특히 한라산 산악효과로 푄현상이 발생할 때에는 산남과 산북 사이에 기온과 강우량의 차이가 뚜렷해서 서로 다른 날씨를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호우는 한라산 산악효과로 풍상측에서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풍하측에서도 기류 수렴지역에 2차호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제주지역의 연강수일수는 120~140일 정도이고,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는 일반적으로 6월 중순에 시작하여 7월 중순경까지 약 한 달간 지속되는데, 여름작물

6) 『제주도 기후특성집』, 제주지방기상청, 2003 참조.
7) 안영화 외,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유형과 원인에 관한 연구」『제주대 해양과환경연구논문집』25호, 2001, 25쪽.
8) 이 수치에는 파랑주의보도 포함되어 있다.『제주기후요람(1961-1990)』, 제주기상대, 1993, 123쪽.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엔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제주지역의 연강수량[9)]



제주섬에서는 '장마', '안개' '축축한 물건에 돋는 검푸른 곰팡이'를 '마'라고 하였다. 장마가 지거나 안개가 끼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때 '마친다' 하고, 오랜 장마가 걷혀 날씨가 맑은 날을 잡아 온 집안의 가제도구에 생긴 곰팡이를 볕과 바람에 말리어 털어내고 정리하는 것을 '마불린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마불린다'는 것은 장마철에 돋아났던 '마' 즉 '곰팡이'를 바람에 날려 보낸다는 뜻이다. 제주무속에서는 음력 7월 14일 전후하여 당굿의 이름으로 '마불림제'를 행하였다. 습기에 차고 곰팡이가 생긴 신의(神衣)들을 말리고, 마을 설촌 조상인 당신(堂神)에게 가을곡식의 풍등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 백중(음력 7월 15일)은 24절기 가운데 처서(양력 8월 23일경)를 전후한 시기가 되는데 오행(五行)의 계절분류[春, 夏, 長夏, 秋, 冬]에 따르면, 늦여름인 '장하'에 해당하며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고 여물어가는 시기로 이때의 기상이 추수의 풍흉(豊凶)을 결정한다. 현용준에 따르면, '백중제'는 유식(儒式) 마을제의 백중코스와 같이 우마(牛馬)의 증식을 비는 제이다.[10)]

한편 화산회토로 덮힌 제주섬의 토양은 보습력이 약해서 열흘만 비가 안 와도 가뭄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뭄 피해는 비 피해 못지않게 제주인들에게 혹독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겨울철에도 해안지대에서는 일평균기온이 5℃이나 최저기온이 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한랭건조한 시베리아기단이 제주섬 부근 바다까지 확장될 때에는 해수면과 대기의 온도차이로 눈구름 형성되어 한라산과 중산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때로는 대설과 한파가 몰아치는 경우도 나타난다.

예보능력이 뒤떨어졌던 예전에는 자연재해가 요즘보다 훨씬 심했다.『조선왕조실록』,『증

9) 심재면, 「기후변화의 개념, 원인과 영향」, 2014년 기후해설사 과정 강의자료, 2014. 6. 17.
10) 현용준, 『제주도 마을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27쪽.

보문헌비고』,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속음청사』, 『제주계록』, 『탐라기년』 등 사료에는 제주기상과 관련된 다수의 기록들이 존재하며, 주로 농업과 관련된 바람, 비, 가뭄 등의 특이기상과 관련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사료에 기록된 제주의 기상재해[11]

시기	바람	비	가뭄	대설/한파	황사	계
15세기	6	3	2	2		13
16세기	5	5	4		1	15
17세기	19	13	8	6	2	48
18세기	12	5	6		3	26
19세기	2	4	3	2		11
계	44	30	23	10	6	113

제주섬 자연재해는 바람, 비, 가뭄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17세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강풍, 호우, 가뭄, 한파 등 각종 이상기상이 많았는데, 기상학자들은 16~19세기를 소빙기로 보며, 그 가운데 17세기를 가장 극심했던 최성기로 본다.[12] 기상에 의한 자연재해는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의 몫은 아니었다. 제주섬의 각 마을 본향당에서는 마을단위로 일 년에 네 차례 마을 굿을 행하였다.[13] 즉 마을주민의 무사안녕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정초의 포제나 과세문안제, 이월의 영등굿, 칠월의 마불림제나 백중제, 시월의 시만곡대제(추수감사제) 등 의례를 행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섬에서 세시의례가 더 철저히 지켰던 것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환경이 열악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2 온난다습한 기후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섬은 본토와는 다른 기후를 지닌다. 제주섬은 연중 온난다습하고 일교차가 본토에 비해 작으며, 최한월인 1월에는 서울보다 8~10℃ 따뜻하다. 그리고 통상적인 동절기에 해당하는 12월, 1월, 2월에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해안지대에는 일평균기온이 대부분 5℃를 넘지 않는다. 제주섬 해안지대에는 기상학적으로 겨울은 없고, 봄, 여름, 가을 세 계절만 있는 셈이다.[14]

---

11) 김오진,「조선시대 제주도의 기상재해와 관민의 대응양상」『제주지리론』, 한국학술정보, 2010, 174쪽 및 심재면, 「기후변화의 개념, 원인과 영향」, 2014년 기후해설사 과정 강의자료, 2014. 6. 17 참조.
12) 김오진, 위의 책, 177-178쪽.
13) 장주근, 「강인한 삶의 현장, 풍요에의 기원」『제주도 영등굿』(김수남 사진집), 열화당, 1992, 98쪽.
14) 기상학적 계절 구분에서 겨울은 일평균기온 5℃ 이하(최저기온 0℃ 이하)를, 봄·가을은 일평균기온 5℃~20℃를, 여름은 일평균기온 20℃ 이상(최고기온 25℃ 이상)을 말한다. 국립기상연구소·제주기상청, 『기후변화이해하기VI- 제주의 기후변화』, 2010, 52쪽 참조.

24절기에 따른 제주(청) 일평균기온표[15]

절기상 계절	24절기	양 력 (+1)	제주(청) 일평균기온(℃)					
			1931-'60	1951-'80	1961-'90	'71-2000	'81-2010	평균
봄	입 춘	2월 4일	5.1	4.8	4.5	5.3	5.4	5.0
	우 수	2월 19일	4.8	5.6	6.2	6.3	6.7	5.9
	경 칩	3월 5일	7.4	7.4	7.2	8.2	7.9	7.6
	춘 분	3월 20일	8.8	9.3	9.6	9.8	10.4	9.6
	청 명	4월 5일	10.6	12.3	12.3	12.5	12.5	12.0
	곡 우	4월 20일	12.9	13.8	14.2	14.4	14.8	14.0
여름	입 하	5월 5일	15.7	15.2	15.9	16.6	17.2	16.1
	소 만	5월 21일	16.3	17.6	17.8	18.1	18.3	17.6
	망 종	6월 6일	18.6	19.3	20.0	20.3	20.4	19.7
	하 지	6월 21일	20.1	21.2	21.4	21.4	22.1	21.2
	소 서	7월 7일	23.4	23.9	24.2	24.6	24.5	24.1
	대 서	7월 22일	26.0	26.8	26.9	27.1	26.9	26.7
가을	입 추	8월 7일	27.3	27.1	27.7	27.4	27.4	27.4
	처 서	8월 23일	25.4	26.2	25.8	25.8	26.4	25.9
	백 로	9월 8일	22.4	23.5	23.9	23.8	24.1	23.5
	추 분	9월 23일	20.4	21.2	21.8	21.5	21.8	21.3
	한 로	10월 8일	17.7	18.5	..	19.0	19.5	18.7
	상 강	10월 23일	15.4	16.1	..	16.5	16.9	16.2
겨울	입 동	11월 7일	12.8	13.7	..	14.6	14.9	14.0
	소 설	11월 22일	11.4	10.6	..	11.3	11.6	11.2
	대 설	12월 7일	9.0	8.5	8.3	8.9	9.0	8.7
	동 지	12월 21일	7.2	7.2	7.4	7.6	7.9	7.5
	소 한	1월 5일	5.1	5.2	5.2	6.3	6.2	5.6
	대 한	1월 20일	4.8	5.3	4.9	5.1	5.6	5.1

제주섬 기후가 육지부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은 조선시대에 중앙에서 파견된 목사나 유배왔던 선비들의 기록에도 나타난다. 1601년 안무어사(安撫御使)로 파견되었던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은 『남사록(南槎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한 지역민(土人)에게 물으니 "봄과 여름 낮에 안개가 끼면 섬이 온통 시루 속에 있는 것과 같아 지척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주보고 앉았어도 다만 말소리만 들릴 뿐 그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고 한다. 내가 (음력) 9월에 닻을 내리고 정월에 출항하였으니, 바로 이 가을 겨울이 하늘이 개는 때인데 그 사이 5개월 간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불과 수 십일이다. 이 밖에는 항상 흐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렸고, 바람이 불지 않은 날이 없었다. 섬사람들은 몹시 가난하고 옷이 없는 자가 많다. 망석(網席)을 뚫어 만든 도롱이를 입고 겨울 추위를 막는다. 대개 그 땅이 북쪽 본토에 비해서 대단히 따뜻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죄를 짓고 들어가서 옷 없이 벌거벗은 자도

15) 기상청(http://www.kma.go.kr) 기후자료<국내기후자료<평년값자료(30년): 1961-1990, 1971-1990, 1981-2010> 및 중앙기상대, <한국기온자료: 1904~1960> 제1권, 1987 참조. 여기서 절기 온도는 입춘인 경우 2월 4일 또는 5일, 대한인 경우는 1월 20일 또는 21일이 되기 때문에 위 표에 날짜와 그 다음날의 기온을 평균하여 24절기의 일평균기온으로 삼았다. 여기서 기온은 제주지방기상청(제주시 건입동 소재)의 기온을 나타낸다.

역시 풍속에 따라 추위를 견디는 것인데 이는 살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백성은 곱추병과 상처와 헌데가 온몸에 나 있는 자가 많은데 이는 반드시 풍토가 나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충암(沖庵) 김정(金淨, 1486~1521)의『충암록(沖庵錄)』에 따르면, 이 읍의 풍토는 유별나고 모든 일이 다르다. 문득문득 감탄하고 놀라게 된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데, 변화하거나 어긋나서 일정치가 않다. 기후는 따뜻한 것 같은데 옷 입은 사람은 매우 불편하다. 의식(衣食)을 절도있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쉽다. 더군다나 구름과 안개가 항상 음침하고 찌고 습하고 끓는 듯하고 울적하다. 땅에는 벌레들이 많은데 파리와 모기가 더욱 심하다. 지네와 개미와 지렁이 등 모든 굼실거리는 것들이 모두 겨울나도 죽지 않으니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16]

한편 대정에서 10여 년간(1614~1623) 유배생활했던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 역시「대정위리기(大靜圍籬記)」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지역민(土人)에게 다음과 같이 들었다. "제주도(瀛州)는 둘러가며 전역이 바다 가운데 있는 어려운 섬이다. 그런데 이 (대정)현은 바닷가에 더욱 가까워 지형이 낮아 풍토병의 독한 기운이 (제주)삼읍 중에서 가장 심하다. 봄 여름이 바뀔 때부터 가을 8월초에 이르기까지 장마가 들면 계속 축축하여 개지 않아 눈병이 발생하고 때도 없이 지독한 안개가 침침하게 막아 지척을 가리지 못한다. 사람과 물건들이 이때가 되면 기둥 서까래와 창벽에 물방울이 흐르는 게 샘처럼 하여 옷과 갓이며 상과 돗자리가 번지르하게 습기가 져서 땟물과 같다. 이러므로 비록 옷, 재물, 곡물이 있다 해도 여름이 지나면 썩어버려 끝내는 못쓰게 돼버리고 만다. 문지도리 쇠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지나면 모두 삭아 썩는다. 하물며 피와 살이 있는 신체에서야 … 우리야 여기서 성장하여 습관과 성격이 이뤄지지만 내지(內地)의 조관(朝官)이야 어찌 견딜 곳이겠는가."

가을 기운이 끝나가고 북풍이 일어나려고 하면 장려(瘴癘)라는 풍토병이 조금 개고 양기(陽氣)가 드러나는데 정말 요즘과 같다. 그런데 겨울에 간혹 춥지 않고 여름에 간혹 덥지를 않아 기후가 서로 어겨 추위와 더위가 거꾸로 놓인다. 입는 것과 먹는 것이 조절하기 어려워 질병이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뱀, 지네, 땅강아지, 지렁이 등 꿈틀거리는 생물들이 모두 겨울을 지나도 죽지를 않는다. 이는 풀과 나무, 무우, 부추, 마늘, 상치 등 모든 씨 뿌려 심는 종류는 비록 깊은 겨울에도 여러 나물을 밭에서 구해다 쓸 수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17]

두 기록 모두 기후변화가 심했던 시기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주섬 기후는 예나 지금이나 육지와 확연히 다르다. 지금도 육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제주섬에서 겨울에도 들판에서 푸른 채소를 볼 수 있고, 야자수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국적이라고 생각한다. 온난다습한 기후는 겨울에도 식물 성장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일 년 내내 늘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든 미생물 번식이 가능하다면, 어디를 손대도 미생물에 감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던 시절의 제주인들이 늘 감염성 질병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미생물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감염성 질병을 신의 조화로 인한 동티[動土]로 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제주인들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재해와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제주기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비해야 했다. 제주섬의 일별 기온분포를 보면 지 1971~2000년을 기준으로 2월 2일이 가장 낮은 4.3℃이고, 8월 1일이 가장 높은 27.6℃를 보이고 있다. 제주인들은 속담과 신화 등을 통해서 미생물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경고해야

16) 김상헌(金尙憲) 저, 김희동 역,『남사록(南槎錄)』, 영가문하사, 1992, 53-56 쪽 참조.
17) 이증(李增) 저, 김익수 역,『남사일록(南槎日錄), 1681』, 제주문화원, 2001, 159-160 쪽 참조.

했다. 제주속담에 “오뉴월에는 아진 방석도 못 고쳐 안나.”는 말이 있다. 제주섬에서 음력 오뉴월이면 무더운 장마시기이기 때문에 앉아 있던 방석에서도 옮겨 앉지 말아야 할 정도로 조신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고온다습한 시기에 물건을 옮기거나 이사하게 되면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반드시 뒤탈이 난다는 것을 경고하는 속담이다.

반면에 신구간 풍속은 그와는 반대되는 속신이다. 신구간[18], 즉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는 제주섬의 기후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기간이다. 제주섬에서 신구간은 가장 추운 기간으로 1년 중 일평균기온이 5℃ 미만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기간이다.

신구간 제주 일평균기온[19]

신 구 간 1월 25일 ~ 2월 2일	제주(청) 일평균기온(℃)					
	1931-’60	1951-’80	1961-’90	’71-2000	’81-2010	평균
	4.51	4.28	4.52	4.71	4.96	4.60

제주인들은 이 기간을 지상에 신이 없는 기간으로 삼아서 평소에 동티날까봐 두려워서 못했던 건물 증개축, 통시[화장실] 수리, 이사 등을 했다. 그들은 이 기간에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지상(地上)의 일을 관장하던 신[舊官]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새로 임명받은 신[新官]들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지상에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두려워서 못했던 일들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다, 하지만 평소에 그러한 일들을 했다가는 동티[動土]가 나서, 그 집에는 큰 가환(家患)이 닥치고 액운(厄運)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믿었다.

제주도의 민간에서는 이사나 집수리 따위를 비롯한 손질은 언제나 이 ‘신구간’이라는 기간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구간’은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간으로, 이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가 된다. 이 신구간은 보통 신구세관(新舊歲官)이 교승(交承)하는 과도기간을 뜻한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대체로 제반 신격(神格)이 천상에 올라가서 지상에는 신령이 없는 것으로 관념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기에 이 기간에는 이사나 집수리를 비롯한 평소에 꺼려했던 일들을 손보아도 아무런 탈이 없어 무난하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평상시에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다가는 동티가 나서, 그 집에는 큰 가환(家患)이 닥치고 액운(厄運)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하니, 날이 갈수록 일상생활에서는 미신으로만 돌려 버리던 이들까지도 이 속신(俗信)에만은 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 주거지를 중심으로 늘 우리의 생활과 관계있다고 믿는 신으로서는 대개 본향(本鄕) 토주관(土圭官) 한집을 비롯해서 성주신, 조왕신, 문전신, 토신, 신장, 마두직이, 올래마두, 정살직이, 칙간신, 나무벌목신, 석상신, 칠성신, 정주목신 따위로, 이들은 일체의 지상신으로서 심방[巫覡]들은

18) 세관교승조에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에 신구세관이 교승하는 때(大寒後五日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令之際)”라고 하는 표현은 “대한 후 5일이면 지상의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없고, 입춘 전 2일이면 다시 신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인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를 지상에 신이 없는 기간이라 생각하였다. 대한은 1월 20일(또는 21일)이고, 입춘은 2월 4일(또는 5일)이기 때문에 신구간은 1월 25일(또는 26일)에서 2월 1일(또는 2일) 사이가 되므로, 여기서 신구간 일평균기온값은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평균기온을 더하여 9로 나눈 값이다.

19) 기상청(http://www.kma.go.kr) 기후자료<국내기후자료<평년값자료(30년): 1961-1990, 1971-1990, 1981-2010> 및 중앙기상대, <한국기온자료: 1904~1960> 제1권, 1987 참조.

지신(地神)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아무튼 제주사람들은 이 신구간이 아닌 다른 시기에 부엌, 문, 변소, 외양간, 집중창 등을 고치거나, 울타리 안에서 흙을 파고, 울담을 고치고, 나무를 자르는 따위의 일을 하면 동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티로 인해 잘 아프게 되는 증상으로는 대개 다리, 눈, 머리, 목, 가슴 등이 아프거나, 전신불구 따위로 그 아픈 증상이 한결같지 않으며, 급한 동티가 생겼을 때는 심방을 청해다가 빌 사이도 없이 죽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한 주의를 하여 이사나 집수리 따위는 반드시 이 신구간에 하게 된다. 이것은 평상시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 매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신구간은 옥황상제의 임명을 받아 내려온 여러 신격(神格)들의 임기가 다 끝나게 되어 구관(舊官)은 옥황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다시 신관(新官)이 서로 부임해 내려오는 이른바 신관·구관이 교대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지상의 모든 신들이 일 년 동안 인간 세계에 있었던 온갖 일들을 옥황상제님 앞으로 총결산을 함과 아울러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새로운 임지로 발령도 받게 된다. 제주도민은 여러 신들이 옥황상제에게로 오가고, 또 그 신들이 많은 일거리들을 처리하느라고 인간세계를 보살필 겨를이 없는 분망한 틈을 타서 신들의 눈을 피해 쓰러져 가는 가옥을 다시 고쳐 세우고 또한 새로운 살림살이를 꾸며온 것이다.[20]

신구간이 『천기대요(天機大要)』[21]와 『산림경제(山林經濟)』의 '세관교승'조에서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은 곧 신구세관(新舊歲官)이 교승하는 때이다. 입춘일을 범하지 말고, 반드시 황도일(黃道日)과 흑도일(黑道日)을 가려서, 먼저 조상의 신주(神主)에게 길(吉)한 방향으로 피해서 나가도록 청해야 한다. 이때에는 산운(山運)에도 거리낌이 없어 모든 흉살이 극복되므로, 임의로 가택을 짓고 장사를 지내도 불리함이 없다"[22]는 데서 기인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두 책이 전국적으로 널리 읽혔는데도 육지에는 신구간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이유는 이 시기가 기상학적으로 가장 추운 한겨울이기 때문이다. 제주섬에서는 이 기간을 묵은 철을 정리하고 새 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지만, 육지에서는 이사를 하거나 집을 수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기후적으로 볼 때 제주섬에서는 '세관교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신구간 풍속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

20)진성기, 『제주도민속』[9판], 제주민속연구소, 1997, 383-388쪽 및 『제주도지(하)』, 제주도, 1982, 926-928쪽

21)『천기대요』는 역학(易學)과 오행설(五行說)에 바탕을 둬서 상장(喪葬), 기조(起造), 혼인, 이사 등을 할 때 택일과 방위를 결정하는 법을 기술한 도참서(圖讖書)로 조선시대에는 조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기대요』를 명(明)조의 임소주(林紹周)가 편찬한 것을 인조14년(1636)에 성여훈(成汝壎) 도입하여 간행하였고, 영조13년(1737)에 지백원(池百源)이 증보본을 만들고 영조39년(1763)에 지일빈(池日賓)이 신증본[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을 간행하였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천기대요[增補參贊秘傳 天機大要]』가 원말명초(元末明初)의 역리학자 동덕창(董德彰)이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http://www.ncc.com.tw/books/goods.php?id=6423 참조) 이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명(明)의 임소주(林紹周)는 역학(易學)과 오행설(五行說)에 바탕을 둔 『신간이리상변찬요삼태편람통서정종(新刊理氣詳辯纂要三台便覽通書正宗)』이라는 도참서를 편찬하였고, 이를 만력(萬曆)무술(戊戌)년(1598)에 임유송(林維松)이 중편(重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은 곧 신구세관(新舊歲官)이 교승하는 때이다"라는 내용이 없다. https://archive.org/search.php?query=creator%3A%22(%E6%98%8E)%E6%9E%97%E7%B4%B9%E5%91%A8%E8%BC%AF%22 참조.

22) 大寒後五日 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令之際 不犯立春日 須擇黃黑道 先請祖先神主出避吉方 不忌山運 被克及諸般凶殺 起造葬埋 任意爲之 無不利 [原本 影印版『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 1981: 131-132쪽], 歲官交承(不犯立春日 須擇黃黑道)大寒後五日 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令之際 其間善擇日時 不忌山運 被克及諸般凶殺 起造葬埋 任意爲之 無不利 [국역『산림경제 I』: 11-12쪽, 국역『산림경제II』: 199-203쪽])

신구간 전후 절기 지역 일평균기온(1971-2000, ℃)

지 역 / 절 기	서울	광주	완도	부산	제주
소 한 (1/5,6)	-2.4	0.8	3.5	3.3	6.3
대 한 (1/20,21)	-3.2	-0.2	1.9	2.4	5.1
신구간 (1/25~2/2)	**-3.2**	**-0.3**	**2.0**	**2.3**	**4.7**
입 춘 (2/4,5)	-1.6	0.7	2.7	3.5	5.3
우 수 (2/19,20)	0.7	2.7	4.4	5.2	6.3
경 칩 (3/5,6)	3.1	4.8	7.2	6.3	8.2
춘 분 (3/20,21)	6.8	7.8	9.0	8.4	9.8

이처럼 신구간 풍속이 제주도에만 (남아) 있었던 데는 단순히 무속이나 미신으로 돌려버릴 수는 없는 기후환경적 요인들이 있다. 이처럼 신구간 풍속이 제주섬에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제주인들의 전통적인 무속적 성향, 그로부터 한시적으로나마 일탈을 가능하게 해준 <세관교승>의 유입, 그리고 기후 환경적인 실증적 효과 등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무속신앙이 제주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주섬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 비가 많고, 화산회토로 이뤄져서 조금만 가물어도 가뭄을 겪고, 태풍의 길목이어서 바람 피해가 심했고, 고온다습한 기후는 1년 내내 세균의 번식이 가능해서 제주인은 늘 질병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했다. 자연재해와 질병 등을 인간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했던 옛 제주인이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무속적 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본토와 멀리 떨어진 제주섬은 무속문화를 흡수하고 분화해서 보존해온 우리나라 무속문화의 종착적인 집결처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무속신화가 가장 풍부하고 무속의례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민간신앙에 대한 제주도민 의식

최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민간신앙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23] 제주도민은 제주무속을 '미신'(46%), '전통문화'(29%), '전통신앙'(23%) 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는 무속을 미신으로 보는 이가 많지만, 과학기술시대인 요즘에도 제주의 전통문화나 전통신앙으로 인식하는 이도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본 조사는「제주생활문화 의식과 정체성」『제주생활문화사』(제주문화원, 2014년 발행예정)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조사했던 내용 중 일부이다.

무속신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N	미신	전통신앙(종교)	전통문화	잘 모르겠다
전 체		301	45.8	22.9	29.2	2.0
지역	제주시 동	169	43.8	20.1	34.9	1.2
	제주시 읍면	51	27.5	33.3	35.3	3.9
	서귀포시 동	44	61.4	29.5	6.8	2.3
	서귀포시 읍면	37	62.2	13.5	21.6	2.7
성	남 성	150	50.0	19.3	30.0	0.7
	여 성	151	41.7	26.5	28.5	3.3
연령	20 대	50	46.0	12.0	32.0	10.0
	30 대	56	48.2	17.9	33.9	
	40 대	68	50.0	20.6	27.9	1.5
	50 대	58	39.7	27.6	32.8	
	60대 이상	69	44.9	33.3	21.7	
학력	초 졸	30	30.0	46.7	23.3	
	중 졸	25	52.0	24.0	24.0	
	고 졸	97	49.5	27.8	20.6	2.1
	대 재	28	39.3	17.9	35.7	7.1
	대졸이상	121	47.1	14.0	37.2	1.7
종교	불 교	115	33.0	37.4	28.7	0.9
	천 주 교	36	50.0	25.0	22.2	2.8
	기 독 교	25	60.0	24.0	16.0	
	종교없음	125	53.6	8.8	34.4	3.2
출생거주	제주출생, 거주	139	40.3	26.6	31.7	1.4
	제주출생,육지 10년 이상	11	45.5	27.3	18.2	9.1
	제주출생,육지 10년 미만	101	52.5	18.8	26.7	2.0
	육지출생,제주 10년 이상	44	50.0	22.7	27.3	
	육지출생,제주 10년 미만	6	33.3		50.0	16.7

‘무속’을 ‘미신’으로 인식하는 도민은 서귀포시 동지역(61%)과 읍면지역(62%), 중졸(52%), 기독교인(60%), 회사원(56%)인 도민들에서 많았고, ‘전통문화’로 인식하는 도민은 제주시 지역(35%), 대재(36%), 대졸이상(37%), 종교없음(34%) 도민들에서 많았다. 이는 제주칠머리당굿이 1980년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제로 지정되고,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속’을 ‘전통신앙’으로 인식하는 도민은 제주시 읍면지역(33%), 서귀포시 동지역(30%), 초졸(47%), 불교인(37%) 도민들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에게 ‘일이 잘 안 풀릴 때 굿을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제주도민의 8%만이 동의하고, 대부분(87%)의 도민은 굿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 본인 / (남자의 경우) 아내(또는 어머니)가 당(堂)에 다니는지를 물은 결과, 도민의 8%만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69% 도민은 ‘당에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 신앙으로서 신당을 찾는 도민이 많이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제주도민의 40%는 사고가 나서 정신적 쇼크를 받아 넉(넋)났을 경우에, 심방(무당)을 불러 넉(넋)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민의 25%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망자의 영혼을 보내는

이른바 귀양풀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명천지한 시대인데도 제주섬에 여전히 무속신앙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혼하거나 이사할 반드시 택일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도민의 43%가 ‘동의’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동지역(50%), 60대이상(65%), 초졸(87%), 불교인(64%), 농어업 종사(60%), 무직계층(68%)인 도민들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점술가를 찾아가는지’ 물은 결과, 도민의 16%가 ‘찾아간다’고 응답했고, 서귀포시 동지역(18%)과 읍면지역(19%), 여성(23%), 60대이상(30%), 초졸(37%), 불교인(32%), 제주출생 제주거주(22%) 도민들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까지 마을구성원들의 안녕을 기원하던 마을제(포제, 리사제, 동사제, 당굿)는 마을공동체의 단합을 꾀하는 역할을 하였다. 새마을운동 이후 한때 사라졌던 마을제가 최근에 다시 부활되는 조짐도 보인다. 마을제에 대한 도민의 생각을 물은 결과, ‘우리 마을에서 마을제를 지내는 것이 좋다’(37%), ‘잘 모르겠다’(35%), ‘아니다’(28%) 로 나타났다. ‘마을제를 지내는 것이 좋다’는 도민은 제주시 읍면지역 (59%), 50대(47%)와 60대이상(55%), 초졸(57%)과 중졸(64%), 불교인(54%), 농어업 종사(55%), 무직계층(64%), 제주출생 제주거주(47%)와 제주출생 육지거주 10년이상(46%), 성장지역이 제주시 읍면(45%), 서귀포시 읍면(50%)인 도민들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제 참여 여부를 물을 결과, 도민의 15%만이 마을에서 마을제를 지내는 경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도민은 85%이며, 이 가운데는 ‘마을제 자체를 모르는 경우’(14%)도 포함되어 있다. ‘마을제에 참여한다’는 도민은 제주시 읍면지역(31%), 서귀포시 읍면지역(22%), 50대(26%)와 60대이상(22%), 중졸(36%), 농어업 종사(35%) 도민들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마을에 남아 있는 신당이나 당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보존 해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도민은 24%, ‘보통’이라는 판단을 유보한 도민은 50%, 부정적으로 보는 도민은 26%로 조사되었다. 당집을 도에서 지원·보존해 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도민은 제주시 읍면지역 (37%), 30대(30%)와 60대이상(38%), 초졸(47%)과 중졸(32%)인 도민들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 때 미신타파 운동으로 신당을 파괴하고 굿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당시에 당과 굿을 없앤 것은 잘 한 일인가’를 물은 결과, 도민의 45%가 동의하였고, 20%는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의견을 보이는 도민은 35%였다. ‘당과 굿을 없앤 것은 잘한 일’로 보는 도민은 제주시 동지역(50%)과 서귀포시 동지역(52%), 40대(52%)와 50대(51%), 천주교인(53%)과 기독교인(60%) 등의 도민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칠머리당굿은 어부와 해녀들의 생업과 마을주민의 평안을 위한 당굿으로, 2009년 9월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많은 도민이 제주칠머리당굿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61%)고 하였고, ‘잘 모르겠다’(25%),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14%)고 응답했다. 제주칠머리당굿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도민은 제주시 동지역(62%)과 읍면지역(63%), 남성(67%), 30대(70%), 불교인(76%)인 도민들에서 비교적 많았다.

그리고 제주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신구간(대한 후 5일 입춘 전 3일, 즉 1월 25일~2월 1일)’에 이사를 하거나 임대계약을 하는 풍습이 있다. 그러한 신구간 풍속이

바람직한 지를 물은 결과 27%가 '그렇다'고 동의하였고, 61%가 반대하였다. 1980년대 후반 도민들에게 신구간에만 이사를 하거나 집을 고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 설문조사에서도 '그렇다'(28%)와 '그렇지 않다'(57%)로 나타난 바 있다. 신구간 풍속과 관련해서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점차 바뀌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금방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처럼 제주섬에는 민간신앙이 박제화되지 않고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쉽게 단절될 것 같지는 않다.

4. 제주섬의 질병들

4.1 미생물에 의한 질병

미생물(微生物, microorganism)이란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을 일컫는다. 미생물은 크게 진정세균(bacteria), 고세균(archea), 진균(fungus), 원생동물(protozoa), 조류(algae), 바이러스(virus) 등으로 나뉘며, 담수, 지하수, 해수, 바위, 대기권, 식물세포 표면과 속, 동물의 피부와 장관(腸管) 등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서식한다. 1g의 흙에는 4천만 개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1㎖의 물에도 1백만 개 이상 존재하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는 대략 5×10^{31} 마리로 그 무게를 합하면 5만조톤에 이르며, 식물과 동물의 수와 양을 합친 것보다 많아서 모든 생물체 무게의 60%에 해당한다.[24]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100억 건의 감염병이 발생한다.[25] 1861년 파스퇴르(L. Pasteur)가 미생물이 어떤 신비로운 힘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1876년 코흐(R. Koch)가 미생물(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냄으로써[26] 인류는 질병이 신의 천벌이라고 믿어왔던 속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사람이나 동물 등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pathogen)은 약 2000종으로 전체 미생물 숫자에 비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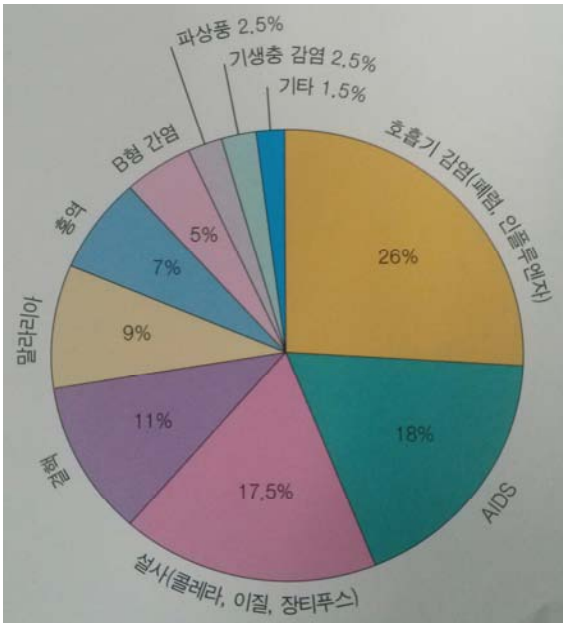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는 온도, pH, 삼투압, 수분, 탄소, 질소원, 미네랄, 산소 등 여러 물리화학적 요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온도는 미생물의 증식과 사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미생물은 최적온도에서 가장 잘 증식되며, 최저온도 이하에서는 휴면상태로 들어가 미생물의 대사가 둔화되거나 정지되고, 최고온도 이상이 되면 사멸된다. 미생물은 최적온도에 따라, 저온성(psychrophile), 중온성(mesophile), 고온성(thermophil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저온성 미생물은 0~25℃, 최적온도는 12~18℃이고 저온의 해양과 5℃의 가정용 냉장고 등에서도 자라며, 어떤 것은 0℃ 이하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것도 있다. 중온성 미생물은 최적온도 10~45℃, 최적온도 30~37℃이다. 그리고 고온

24) 오상진, 『일반미생물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15쪽 및 천종식, 『고마운 미생물 얄미운 미생물』, 솔, 2005, 12-13쪽.
25) 김종배 외, 『병원미생물학』, 라이프사이언스, 2012, 11쪽.
26) 김응빈 외 옮김, 『토토라미생물학』, 바이오사이언스출판, 2014, 6-10쪽 참조.

성 미생물은 45~80℃에서 증식하며 최적온도는 55~60℃로 주로 온천, 고온의 토양에서 발견된다.

모든 인체 병원균과 상재균(常在菌)은 중온성 미생물에 속하며, 장티푸스균과 같은 병원균들은 체온과 유사한 37±1℃가 최적의 증식을 할 수 있하며, 5℃ 이하가 되면 거의 증식을 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중온성 세균이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며 사람 몸에서 기생하는 대부분의 세균은 오히려 면역계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고, 대장균의 경우는 비타민 K의 대사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과 공생하는 세균을 정상세균총(正常細菌叢, normal bacterial flora)이라고 한다. 사람의 세포 수는 60조 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인체에 존재하는 세균은 이보다 약 10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세계 10대 감염성 질병 현황[28]



인류는 항생제, 백신 등의 개발로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는 결핵, 말라리아 등과 같은 악성질병과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과 같은 전염성 설사나 폐렴, 독감 등 호흡기 전염병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죽어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로 사라졌던 질병이 재유행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이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AI),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인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면서 각종 새로운 전염병이 출현하고 있다.

27) 학문명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83747&cid=44416&categoryId=44416) : <의약학 <미생물학<세균학[Bacteriology] 참조.
28) 김종배 외, 『병원미생물학』, 라이프사이언스, 2012, 11쪽.

중요 병원 미생물[29)]

미생물 / 질병	세균	진균	바이러스
폐렴(호흡기감염)	*Legionella*		
회귀열(재귀열)	*Borrelia*		
임질	*Neisseria*		
백일해	*Brodetella*		
장티푸스, 식중독	*Salmonella*		
콜레라, 급성장염	*Vibrio*		
세균성이질	*Shigella*		
설사, 패혈증	*Yersinia*		
식중독	*Staphylococcus*		
세균성 설사	*Escherichia*		
발진티푸스	*Rockettsia*		
트라코마, 결막염	*Chlaydia*		
분만패혈증	*Peptcoccus*		
파상풍	*Clostridium*		
결핵, 나병	*Mycobacterium*		
어루러기		*Malassezia furfur*	
백선,무좀		*Microsprom*	
크립토코쿠스증		*Cryopocccus neoformans*	
콕시디오이데스증		*Coccidioides immitis*	
히스토플라스마증		*Histoplasma capsulatum*	
스포로트리쿰증		*Sporotrix schenckii*	
색소효모균증		*Dark-pigmented fungi*	
균종(菌腫)		*Madurella*	
칸디다증		*Candida albicans*	
국균증(麴菌症)		*Aspergillus funigatus*	
모균증(毛菌症)		*Mucor, Rhizopus. Absidia*	
독감			*Influrenza virus*
감기			*Rhinovirus, Adenovirus Entrovirus , Bocavirus Coronavirus*
홍역			*Measles virus*
풍진			*Rubella virus*
대상포진			*Varicella zoster virus*
무균성수막염			*Poliovirus, Echovirus Coxsackievirus*
바이러스성 설사			*Rotavirus, Norovirus Astrovirus, Adenovirus Norwalk-like virus*
바이러스성 간염			*Hepatitis A~E virus*
말라리아	기생충 (*Plasmodium*)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섬에 설사와 식중독 등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주요 미생물로는 *Salmonella, Vibrio, Shigella, Yersinia, Staphylococcus, Escherichia* 등의 세균과 *Rotavirus, Norovirus, Astrovirus, Adenovirus, Norwalk-like virus* 등의 바이러스 등이 있고, 독감과 같은 급성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로는 *Influrenza virus, Rhinovirus, Adenovirus, Entrovirus, Bocavirus, Coronavirus* 등의 바이러스가 있으며, 소

29) 김영권 외, 『병원미생물학』, 수문사, 2008,『병원미생물학』, 라이프사이언스, 2012, 참조.

아마비와 같은 무균성 수막염을 일으키는 *Poliovirus, Echovirus, Coxsackievirus* 등의 장내바이러스도 발견되고 있고, 기생충에 의한 말라리아 감염환자도 나오고 있다.[30]

제주섬에서 세균에 의한 질병과 말라리아는 일평균기온이 20℃이상 되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들이 중온성이어서 연중 온도가 가장 높은 시기에 활발히 증식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바이러스성 설사인 경우는 1월부터 4월에, 급성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4월과 12월 등과 같은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섬의 병원 미생물, 즉 세균, 진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질병 종류와 시기별 발생빈도 등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4.2 무속신앙 속의 질병들

질병과 죽음은 인간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생물학이나 의료지식이 없던 시기에 질병을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인류 공통적인 현상이다. 글레멘츠(F. E. Clements)는 샤마니즘 질병을 잡귀 침입이나 신령이 들어와 생긴 빙의현상(Spirit Intrusion), 사회적 규범인 터부를 어겼을 때 생긴 금기침해(Reach of Taboo), 넉(넋)나는 경우와 같은 영혼상실(Soul-loss),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 침입하여 생긴 물침입(Object Intrusion), 저주로 생긴 병주술(Disease Sorcery) 등으로 나누고 있다.[31]

신화적 사고에 젖은 여느 전근대인들처럼 옛 제주인도 어떤 초자연적인 신령, 즉 일반신이나 조상의 영혼이나 잡귀 등이 병을 준다고 믿었다. 그들은 제주섬 곳곳에 1만 8천신이 편재(遍在)해 있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본풀이 속에 있다고 보고, 심방이나 삼승할망 등이 집전하는 무속의례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심방들은 무속신화를 근거로 의례를 집전하면서 신령에 의해서 생긴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노릇을 하였다.

현용준은 제주섬 무속에 등장하는 질병을 크게 신격(神格)이 주는 질병과 영혼에 의한 질병으로 나누고, 전자를 다시 어린이 질병, 뱀신이 주는 질병, 당신(堂神)이 주는 질병, 도깨비신이 주는 질병 등으로 나눴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뤄져 있는데 영혼이 육체서 일

---

30) 김언주 외,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의 역학적 특성」《보건환경연구원보》제10권(1999),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김언주 외, 「제주도내 설사환자의 바이러스성 및 세균성 원인체 감염실태에 대한 역학조사」《보건환경연구원보》제14권(2003),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김언주 외, 「제주도내 비브리오 패혈증 원인균 분포조사」《보건환경연구원보》제14권(2003),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김언주 외, 「제주도 세균성 설사질환의 역학적 특성」《보건환경연구원보》제12 (2002),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김언주 외,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주요 원인병원체의 역학적 특성」《보건환경연구원보》제21권(2010),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김언주 외, 「제주도 장내바이러스 유행양상 및 분자유전학적 특성」, 환경자원연구원보 제2권(2009),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임진숙 외, 「제주도내 급성설사질환 유발원인 세균의 분리현황 및 특성분석」, 환경자원연구원보 제2권(2009),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오경미 외, 「급성설사질환 유발원인 세균의 분리 및 특성」《보건환경연구원보》제22권(2011),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고신효 외,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설사유발 Norovirusn특성」《보건환경연구원보》제22권(2011),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김언주 외, 「급성호흡기질환 원인바이러스 유행양상」《보건환경연구원보》제21권(2010),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고신효 외, 「제주지역 급성호흡기 질환 원인 바이스 유행양상(2010년~2011년)」《보건환경연구원보》제22권(2011),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고신효 외, 「제주지역에서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행양상(2010~2011절기)」《보건환경연구원보》제22권(2011),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참조.

31) 이은주, 「제주도 무의에 나타난 질병개념」『논문집』제13집,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1989, 64-65쪽 재인용.

부가 나가게 되면 넉(넋)나고, 영혼이 전부 나가게 되면 죽게 되며, 시체를 떠난 영혼이 생시에 어떤 원한이 있거나 횡액(橫厄)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저승엘 못 가서 중간에서 헤매는 사령(死靈), 이른바 '죽산이(죽었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 있는 이)'가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생시의 원한을 풀기 위해 형제나 친족에게 빙의(憑依)하여 질병이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32]

제주섬 무속의례에 등장하는 질병들[33]

신	기능	의례
삼승할망	기자(祈子), 해산(解産), 육아	산후3일,7일,백일,돌 할망床, 아기비념, 불도맞이
구삼승할망	어린이 병역(病疫)	구삼승내기
(큰,작은)마누라	천연두(큰-),홍역(작은-)	마누라배송
(안, 맛)칠성	뱀피부	칠성새남
여드렛당신	처녀 急疾	
백주또	잔칫집 설사병	돗제, 결혼전 의례
일렛당신	눈병, 설사, 옴, 허물 등	당굿
도채비	빙의	영감놀이
전상차지신	일탈행동	전상놀이(삼공맞이)
영혼	넉(넋)남	넉(넋)들이
사령(죽산이)	정신병, 빙의	두린굿, 곱가름
잡귀		푸다시(벌풀이, 신풀이, 끌레기치송)
새[邪], 매[魔]		새도림
멍청이 귓것	감기	동짓날 팥죽
새[邪]	15세 이상 소년 중병	물막개방쉬(막잡은 방쉬)
	액운	대악막이(방쉬굿)

이은주는 글레멘츠(F. E. Clements)의 샤마니즘 질병 분류에 따라 제주무속의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34] 이는 제주무속도 전근대적 사회의 보편적 현상 중의 한 사례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샤마니즘 질병 분류에 따른 제주무속의례

분류	특징	무속의례
빙의현상 (Spirit Intrusion)	잡귀의 침입이나 신령이 들어와 생긴 질병	영감놀이, 전상놀이(삼공맞이), 푸다시(푸닥거리), 두린굿, 새도림, 구삼승냄, 아기비념, 불도맞이, 마누라배송, 당신(堂神)의례
금기침해 (Reach of Taboo)	사회적 규범인 터부를 어겼을 때 생긴 질병	칠성새남
영혼상실 (Soul-loss)	영혼의 상실로 생긴 질병	넉들임, 액막이
물침입 (Object Intrusion)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 침입하여 생긴 질병	아기가 경기할 때 피뽑기
병주술 (Disease Sorcery)	저주나 마술로 생긴 질병	쇠고기방쉬, 물막개방쉬

32) 현용준, 「濟州島巫俗의 疾病觀」『제주도』제21호, 제주도, 1965 참조.
33) 이은주, 위의 논문, 현용준, 「濟州島巫俗의 疾病觀」『제주도』제21호, 제주도, 1965, 진성기, 『복을 비는 사람들』, 디딤돌, 2008 참조.
34) 이은주, 「제주도 무의에 나타난 질병개념」『논문집』제1집,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1989, 73-77쪽 재인용.

5. 제주섬의 민간신앙

5.1 제주섬의 신들

제주섬에 1만8천신이 있다지만, 그것들을 일일이 다 셀 수는 없다. 제주섬 무속에서 숭배되는 신은 크게 일반신, 마을신, 집안신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일반신이란 일월(日月), 산해(山海), 생사, 질병, 농경, 어로, 빈부 등 자연현상과 인간생활의 일반적 사상(事象)을 차지하여 지배하는 신들로 전도(全道) 차원의 신이고, 마을신은 한 마을 안의 토지 및 마을주민들의 제반 생활을 차지하여 수호하는 마을 차원의 신이며, 집안신은 한 가구나 한 씨족의 제반 생활을 수호하는 가구(家口) 차원의 신이다. 신들은 기능과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제주섬의 당신(堂神)들은 대체로 한라산출생계신들은 수렵신, 풍우신적 성격을 띠고, 송당계신들은 수렵신, 농신적 성격을 띠며, 외래신들은 영웅신적 성격을 띠고, 일뤳당계신들은 돼지숭배 잔재, 여드렛당계신들은 뱀숭배 잔재를 나타낸다.

한편 제주인도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죽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믿었다. 그들은 사후 3년이 지난 영신(靈神), 3년 미만인 놀혼[魂魄]이라 하는데, 그것들은 원칙적으로 선한 것으로 생시와 같은 인격으로 보았다. 한편 비명에 죽거나 원한을 품은 채 죽어서 저승과 이승 사이를 떠돌다가 인간에게 빙의(憑依)하여 그 원한을 푸는 사령(死靈)들도 있다.[35] 이 외에도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져 사람을 홀리고 짖궂은 장난이나 험상한 짓을 많이 하는 잡귀인 도채비(도깨비)와 질병이나 재해를 준다는 새[邪]와 매[魔]가 있다. 제주섬의 신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섬의 신들[36]

인격	神	일반신	옥황상제(하늘차지神), 지보ᄉᆞ천[地府四千]대왕(땅차지神), 산신대왕·산신백관(산차지神), 대서[大使]용궁[용왕](바다차지神), 영등할망(바람神), 서산대사·육관대사(절차지神) 삼승할망[멩진국할망](産育神), 홍진국대별상·서신국마누라(痘神), 날궁전·둘궁전(일월신), 초공(巫祖神)과 그 권속, 이공[꽃감관](서천꽃밭神)과 그 권속, 삼공(전상[前生]神)과 그 권속, 시왕[十王]과 하위신(진광대왕,초강대왕,송제대왕,오관대왕,염라대왕,변성대왕,태산대왕,평등대왕,도시대왕,전륜대왕,지장대왕,생불대왕,좌두대왕,우두대왕], 차사(十王使者:일직사자,월직사자,어금부도사,금부도사,이원차사,강림차사,용왕국차사,용궁차사,객사차사,비명차사,결정차사,엄사차사,화덕차사,멩두멩감삼차사,구불법차사), 삼멩감(冥府使者), 세경(농신:ᄌᆞ청비[중세경],문도령[상세경])·테우리(정수남이[하세경]), 성주(가옥신), 문전(문), 칠성(富:안칠성[고팡],밧칠성[뒤뜰]), 조왕(부엌), 오방토신(청대장군[동],백대장군[서],적대장군[남],흑대장군[북],황대장군[중앙]), 주목지신·정살지신(집안출입로神), 울담지신·내담지신(울타리신), 눌굽지신(낟가리신), 칠성[북두칠원성군](壽福), 구삼싱(兒魂), 칙도부인(변소) 등

35) 현용준 외, 『한국민속종합종합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95-106쪽, 현용준, 「濟州島 巫神의 形成」, 『탐라문화』창간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1쪽, 현용준,『제주도 마을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14-20쪽, 문무병,「제주도 도깨비당 연구」『탐라문화』제10호, 1990, 210-213쪽 참조.

36) 현용준 외, 『한국민속종합종합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95-106 쪽 참조.

<table>
<tr><td rowspan="5"></td><td rowspan="3"></td><td rowspan="2">마을신</td><td>儒式</td><td>포신(酺神): 마을주민의 생명, 재산, 토지, 생업을 보호하는 신
(洞社之神, 里社之神, 守土之神, 街衢之神, 土地之神 등)
제석(帝釋): 농업을 관장, 보호하는 신
해신(海神): 용왕 및 그 하위 잡신, 어망업을 하다 죽은 고혼, 도깨비신</td></tr>
<tr><td>堂神</td><td>본향당신: 마을 안의 토지 및 지역민의 생활전반을 수호하는 신
일렛당신: 육아, 눈병, 피부병, 복통 등의 치료신
여드렛당신: 富를 갖다주는 뱀신
해신(海神) : 어촌마을의 어업신(개당할망, 용녀 부인, 용왕 등)
농신(農神) : 중산간마을마을의 농업신(세경)
산신(山神) : 산간마을의 수렵신(산신대왕, 산신백관)</td></tr>
<tr><td>집안신</td><td colspan="2">군웅[구능, 군농, 구능일월]: 공통 근원의 신
조상[조상일월]: 공통 근원으로부터 갈라진 신</td></tr>
<tr><td rowspan="2">死靈</td><td>영혼</td><td colspan="2">영혼(영신) : 죽은 지 3년 지난 死靈
혼백(놀혼) : 죽은 지 3년 미만 死靈</td></tr>
<tr><td>잡혼
(잡귀)</td><td colspan="2">군병: 삼별초(김통정)란, 임진왜란, 방성칠란, 이재수란, 이차세계대전,
4.3사건, 한국전쟁 등 전란 때 비명에 죽은 死靈
군졸: 산, 물, 배 등을 관장하는 신의 뒤를 따르는 잡귀
척귀: 사랑(소원)을 못 이루거나 원한을 풀지 못해 죽은 冤魂</td></tr>
<tr><td colspan="2">도깨비</td><td colspan="2">도채비(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진 잡귀)</td></tr>
<tr><td>비인격</td><td colspan="2">邪 · 魔</td><td colspan="2">질병이나 재해를 준다는 새[邪]와 매[魔]</td></tr>
</table>

현용준은 제주섬 신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제주섬 신들은 옥황상제를 최상위로 하고 눌굽지신을 최하위로 하는 위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위신이 하위신에게 직능상이나 행위 면에서 지시나 제지나 인솔을 하지 못한다. 각 신은 자기가 맡은 바 사물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를 갖는다. 한 신이 다른 신의 직능에 대하여 간섭이나 억압을 하지 않고 독자성을 갖는다.
② 선신(善神)이라 해서 무한대 선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을 푸대접하거나 잘 숭앙하지 않거나 금기를 어기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노여워서 그에 상응하는 질병이나 재해를 인간에게 내려 괴롭힌다. 그래서 그 인간이 사죄하고 치제(致祭)할 때 그 노여움을 풀어 질병이나 재해를 거둔다. 그러나 악신(惡神)인 잡귀(雜鬼), 새[邪], 매[魔] 등은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악신들은 질병을 주거나 재해를 줄 뿐 복을 갖다 주지는 않는다. 심방은 이 악귀를 대접하고 위로하여 물러나게 하지만 그저 물러나기를 바라뿐 그것들이 복을 내려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선신은 질병재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를 거둬들인 후 다시 복을 내려주는 점에서 다르다.[37]

신들의 역할과 기능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특정 신만을 위할 수는 없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무속의례가 행해져야 했다. 한편 도깨비는 신출귀몰하고 변화무쌍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만들어낸다. 도깨비는 으슥한 폐가, 동굴, 숲, 고목 등 음산한 곳, 특히 비가 오는 밤에 잘 나타나는 잡귀로 그와 화해하면 부와 풍요를 가져다주지만 불화하게 되면 질병과 파괴를 통해 망하게 한다. 통상적으로 밤에 묘지나 습기 찬 곳 등에서 인(燐) 따위의 작용으로 나오는 푸른빛을 도깨비불이라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온난다습한 제주에서는 그러한 도깨비불과 도채비를 연결시켜 생각할 여지가 더 많았을 것이다.

37) 현용준 외, 「무속」『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107쪽 참조.

도깨비는 사람처럼 건망증과 소유욕이 있으며 곤경에 빠지면 도와주기도 하고 배신을 하면 보복을 하기 때문에 도깨비는 일반적으로 부(富)나 재물의 신의 성격을 가진다. 제주섬의 도깨비신(도채비)은 일반신, 당신(堂神), 조상신(祖上神)의 세 부분에 걸쳐 있으며, 문무병은 부신(富神) 풍어신(豊漁神), 씨족수호신(氏族守護神), 야장신(冶匠神), 역신(疫神) 등 성격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38]

이처럼 제주섬의 신들은 인간처럼 우주법칙의 지배하에 인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환경적 조건하에 인간적 성격을 지니고 생활해가는 존재이지만 인간에게 좋든 궂든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길흉화복이 있기에, 제주인들은 그들에게 초복(招福)과 제액(除厄)을 염원하는 의례를 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최근 제주섬(추자도 제외) 신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섬에는 449개 신당이 있으며, 그 가운데 350개소가 정상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9] 현용준은 제주섬의 마을신앙을 마을주민 전체(일부 또는 대부분)가 그들 전체(일부 또는 대부분)의 복리를 위해 공동으로 의례하는 제의로 정의하면서 마을제당을 유식제단(儒式祭壇)과 무식제당(巫式祭堂)으로 나눈 바 있다.[40]

제주도 마을신앙의 제단[41]

	유식(儒式) 제단				무식(巫式) 신당				
구분	포제단	제석 제단	해신 제단	기타	본향당	해신당	일렛당	여드렛당	도채비 당
신격 (神格)	마을 수호신	농업 수호신	어업 수호신	목축신 등	마을 수호신	어업 수호신	육아 질병	뱀신 [富]	부·재앙
신체 (神體)	위패(位牌), 지방(紙榜) 등				신목(神木), 신석[神石], 신혈(神穴), 신상(神像) 신물(神物) 돌궤[石櫃], 동굴, 돌담, 위패(位牌) 제단, 무덤 등				
형태	**제단수** 1개/2개/3개이상				신목형/신석형/신혈형/신상형/당집[堂宇]형/ 석원(石垣)형/돌궤[石櫃]형/위패형/제단형 복합형, 기타형				
	모양 장방형, 반월형, 혼합형								

포제단과 본향당에서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의례는 마을회에서, 해신제단이나 해신당에서 어업을 관장하는 해신을 모시는 용왕제는 해녀회나 어촌계에서 주관하지만, 일렛당, 여드렛당 등에서 행해지는 초복(招福)과 제액(除厄)을 위한 의례는 한 가정에서 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38) 문무병, 「제주도 도깨비당 연구」『 탐라문화』제1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210-213.
39) 『제주신당조사』(제주시 권, 서귀포시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 편, 2008~2009 참조.
40) 현용준, 『제주도 마을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참조.
41) 현용준, 『제주도 마을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45쪽, 문무병, 「제주도 도깨비당 연구」『 탐라문화』제10호, 1990, 215쪽, 『제주신당조사』(제주시권, 서귀포시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 편, 2008~2009 참조.

5.2 제주섬의 민간신앙 의례들

제주인도 인간사의 길흉화복은 신의 뜻에 따라 전개된다고 보았고,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신은 병도 주고 복도 주기 때문에 초복(招福)과 제액(除厄)을 염원하며 신에게 의례를 행했다. 민간신앙의 의례는 사안에 따라 집안에서 행해지기도 하고 마을회, 어촌계, 해녀회 등에서 주관하여 집단적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의례는 세시(歲時)와 절기(節氣)에 따라 행해지기도 하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마다 임시적으로 행해지기도 하였다.

길흉화복에 따른 민간신앙 의례[42)]

기원 내용	의례 집전자	개별(집안, 가족)		집단(마을, 계원)
초복 招福	유식 (儒式)			포제(ᄆᆞ을제): 정월丁日 또는 亥日 제석제(농사풍년): 백중 전후 백중코스(우마번식) : 백중 그물코스(어망풍등)
	심방	정기	문전제, 철갈이, 돗제, 멩감코스, 요왕제(용왕제) 등	신과세제(정월), 영등제(2월), 마불림제(7월), 시만국대제(10월), 용왕제
		임시	불도맞이, 아기비념, 성주풀이, 칠성제, 산신놀이, 연신맞이, 신굿 등	
	보살/ 점쟁이	재수(사업, 학업, 건강, 혼인), 사주 각종 제일 택일, 불도맞이, 성주풀이 칠성제, 철갈이, 문전제, 토신제 등		
	정시 (지관)	이사 방위 결정, 각종 제일 택일 양택 (집터)		설촌, 위인생가(풍수) 각종 마을 제일택일
	기타	신구간 : 대한후5일입춘전3일 입춘(새철드는날), 동짓날 일뤳당(育兒): 매월초7, 17, 27일 여드렛당(富): 매월초8, 18, 28일		
제액 除厄	심방	넉들임, 푸다시, 액막이, 구삼승냄, 두린굿(정신병치료), 불찍굿(화재후액막이), 영감놀이(도채비 퇴치), 귀양풀이, 시왕맞이, 칠성새남, 마누라배송(홍역, 천연두치료), 새도림		마을돌림병퇴치굿(질병, 화재예방) 메구굿, 4.3무혼굿, 해원상생굿 기우제, 기청제, 산신제(액막이)
	보살	넉들임, 푸다시, 액막이, 병굿(정신병 및 불치병), 귀양풀이, 수명점		
	정시 (지관)	음택풍수(묘지)		음택풍수(마을묘지), 방사탑
	기타	제사 때 문전제		입춘굿(1999년 복원), 백조일손제사

신을 추앙하면서 의례를 행하는 것은 제주만의 고유문화는 아니다. 인간은 생각에 대한 생각, 즉 메타적 사유(Meta-thinking)를 한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어떤 대상을 생각하는 대상적 사유(Object-thinking)를 넘어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메타적 사유가 가능하기에 추상적, 형이상학적, 초월적 사유가 가능하다. 무한과 영원을 지향하는

42) 고영자, 「민간신앙」『제주생활문화사』, 제주문화원, 2014 출간예정, 이은주, 「제주도 무의에 나타난 질병 개념」『논문집』제13집,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1989, 69-70쪽, 현용준, 『제주도마을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14-20쪽 참조.

인간은 현존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존재해야 할 것까지 추구하며,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려 한다. 철학, 종교, 예술 등은 무한과 영원을 추구하려는 메타적 사유의 산물이다.

메타적 사유를 하는 인간은 구체적인 것 속에서 보편적인 것을, 부분에서 전체를, 유한에서 무한을, 순간에서 영원을 찾으려 한다. 인간은 보이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 그것의 근원과 이유를 찾으려 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생각과 무한을 향한 무절제한 사고는 함께 어우러져서 마침내 스스로가 근원이요, 스스로가 원인이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신화적 사고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데서 시작한다.

과학은 물질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정신현상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기술시대에도 신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화는 세계가 창조(천지개벽)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세계(現世)뿐만 아니라 저 세계(前世와 來世)까지 이야기하고, 생사 문제와 오욕칠정(五慾七情)까지도 그럴싸하게 묘사하고 설명한다. 우리는 신화를 통해 여러 가지 현실적, 이론적 제약을 넘어서 맘껏 상상의 나래를 폄으로써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된다. 신화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신현상에 대해 일상언어로 설명하며, 때로는 서양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도 신화적 방법으로 치유하려 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남아있는 사회일수록 신화의 힘은 더 강하다. 전근대사회에서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사까지도 신령스런 존재가 좌지우지한다고 보았다. 하늘, 땅, 바다, 인간 등도 신이 만들었고, 동식물이나 바위나 동굴같은 무생물에도 신령이 깃들어 있으며, 비, 바람, 가뭄, 지진, 화산, 해일 등의 자연현상과 삶, 질병, 죽음까지도 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애니미즘, 샤마니즘, 무속 등은 특정 지역의 고유한 문화라기보다는 인류문화 차원에서 볼 때 보편적인 것이다.

이를테면 일본인들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신(神, かみ)으로 떠받든다. 그들은 어느 곳 어느 것에도 다 영혼이 있어서 그곳 또는 그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창조신과 훌륭한 조상들뿐만 아니라, 식물·바위·동물·물고기·새 등의 생물과 무생물들도 모두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 일본에서는 수많은 신을 일컬을 때 보통 "八百万(やおよろず)の神(かみ)"라 한다. 그들이 800만신을 이야기하고 11만 신사(神祠)를 만들어 추앙하는 것은 그만큼 지진, 화산, 태풍, 해일 등 인간으로서 어찌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심하고, 남북으로 길게 아열대에서 아한대에 이르는 폭넓은 기후대를 갖는 자연환경의 소산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근대화를 추구하던 행정관료들은 제주섬의 전통문화를 민신으로 폄훼하면서 무속신앙과 신구간 등을 대표적 악습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폐지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그것들이 근대적 합리성에 비춰본다면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그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신구간에는 지상을 관장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신이 두려워서 못 하던 변소개축, 집수리, 이사 등을 하더라도 별 탈이 없다는 속신은 일평균기온이 5℃미만으로 내려가는 신구간에는 중온성 세균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기에 평소에는 세균감염 가능성이 높아서 못했던 일들도 미생물 활동이 둔화되는 시기에 하면 괜찮다는 합리적 근거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제주인들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질병에 대해서 신들의 이야기인 본풀이에 근거하여 금기(taboo)를 통해 경고하고, 세시의례를 통해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재확인하고, 그래도 닥쳐온 재해와 질병들에 대해서는

무속의례를 통해 치유하려 하였다.

제주섬 민간신앙 가운데는 유교, 불교, 도교 등 외래종교에서 유래된 것도 있고, 무속에서 유래된 것도 있다. 그리고 외래종교에서 유래한 민간신앙의 의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육지에서 사라졌거나 다르게 변형된 것들도 있다. 이는 제주인들이 외래문화를 흡수하면서 제주섬의 자연환경에 맞게 변형시켰거나 육지와는 격리된 섬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이 드물어서 한번 형성된 문화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그 원형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특히 영등굿, 마불림제, 신구간 풍속 등은 제주섬의 기후환경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맺는 말

제주섬의 민간신앙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연환경이 열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대와 아열대의 전이지대에 위치한 화산섬에 사는 제주인은 여름철 태풍과 겨울철 북서풍을 견디면서 비바람과 가뭄을 안고 살아야 했다. 남한 최고봉 한라산은 연강수량이 4000밀리미터가 될 정도로 다습한 곳이어서 다양한 토양미생물들이 잘 자라서 풍성한 생명의 그물을 이루며, 제주섬 뭇생명들이 자라는 자궁이자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본향의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에 한라산은 제주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고 단순한 물리적 존재를 넘어서 한라산신으로서 정신적 본향이 되었다.

사람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지대에는 겨울이 없을 정도로 따뜻하기에 병원미생물들이 번식할 기회도 그만큼 많았다. 그 가운데 집집마다 있던 제주섬의 돗통시는 생활폐기물들을 돗거름을 전환하는 장소이기도했지만 병원성 세균들의 들끓는 장소였다. 제주인들은 문전본풀이를 통해 남선비의 본부인인 여산부인이 조왕(부엌)신이 되고 첩인 노일저대귀의 딸이 측간(변소)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변소와 그것들로 인한 감염 우려가 높은 부엌은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고온다습한 제주섬에서 뱀은 먹이사슬과 먹이그물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집 밖에 사는 뱀들은 곡식을 해치는 벌레를 잡아먹고 집 안에 사는 뱀들은 어렵게 수확한 곡식을 축내는 쥐를 잡아먹음으로써 먹고살기 힘든 시절에 식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주섬에서 뱀신앙이 유독 강하고, 뱀이 가정의 부(富)를 지켜주는 안칠성과 밧칠성, 그리고 여드렛당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제주의 기후환경 탓이 크다 볼 수 있다.

기상학적으로 묵은 철과 새 철이 바뀌는 시기에는 새 철, 즉 새로운 질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주섬에선 땅에서는 신구간과 입춘굿을, 바다에서는 영등달과 영등굿을 하면서 새철을 준비하였다. 대한 후 5일에서 입춘전 3일 사이인 신구간에는 신들이 없다는 제주섬의 속신은 그 기간이 일평균기온이 5℃미만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때이기 때문에 병원세균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와도 들어맞아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바다는 육지보다 비열이 높기 때문에 계절변화도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제주섬 바다에서 새로운 절기로 바뀌는 기간은 신구간보다 한 달 여 뒤인 영등달(음력2월)전후가 된다.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시기에 출어를 금하고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영등굿을 올려온

것도 제주섬 기후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대략 6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7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지루하게 이어지던 장마철에 곰팡이가 피었던 옷가지와 물건들을 꺼내어 팔월(음력7월)의 뜨거운 햇볕에 말리는 '마불림제'와 잘 여물어가던 곡식들이 8, 9월 태풍으로 한 순간에 흉작이 될 수도 있기에 백중(음력 7월 15일)에는 풍농을 기원하는 '백중제'를 지냈던 것이다.

과학적 이해가 부족하던 옛 사람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재해, 질병, 사고들을 신의 탓으로 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신이 세상에 편재(遍在)하듯이 지구상에 어디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도 어디든 있다. 그러기에 자연재해가 심한 지역일수록, 온난다습해서 미생물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 많은 지역일수록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에 토대를 둔 민간신앙이 강할 수밖에 없다. 육지부에 비해 제주섬의 민간신앙이 강하고 오래 지속된 것은 그만큼 제주의 자연환경이 열악하고 미생물 증식하기 좋은 기후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제주섬은 태풍의 길목에 있는 화산섬이어서 풍해(風害), 수해(水害), 한해(旱害)가 잦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하기 때문에 거의 일 년 내내 세균번식이 가능하다.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방역이 미비하던 시절엔 어디를 손대도 질병(동티) 감염될 우려가 많던 기후환경 속에서 제주인들은 자연스레 삼라만상을 경외(敬畏)의 대상으로 여겼다. 오늘날까지도 제주섬에 많은 신당이 남아 있고, 신구간 풍속이 지켜지는 것도 이와 같은 제주섬의 자연환경 탓이 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으려면, 제주섬의 자연재해와 민간신앙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무속의례의 질병들에 대한 의학적 차원의 재해석, 그리고 자연재해가 많거나 다른 아열대지역 섬들의 민간신앙과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그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고신효 외,「제주지역 급성호흡기 질환 원인 바이스 유행양상(2010년~2011년)」《보건환경연구원보》제22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2011.

고신효 외,「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설사유발 Norovirusn특성」, 앞의 보고서.

고신효 외,「제주지역에서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행양상(2010~2011절기)」, 앞의 보고서.

고영자,「민간신앙」『제주생활문화사』, 제주문화원, 2014 출간예정,

고찬화 편저,『제주의 전설과 민요』, 디딤돌, 2004.

김상봉,「제주도 연안해역의 폭풍해일고 산정」,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상헌,『南槎錄』, 김희동 역, 영가문하사, 1992.

김수남·장주근 외『제주도 영등굿』, 열화당, 1992.

김언주 외,「급성호흡기질환 원인바이러스 유행양상」《보건환경연구원보》제21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2010.

김언주 외,「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주요 원인병원체의 역학적 특성」, 앞의 보고서.

김언주 외,「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의 역학적 특성」《보건환경연구원보》제10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1999.
김언주 외,「제주도 세균성 설사질환의 역학적 특성」《보건환경연구원보》제12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2002.
김언주 외,「제주도 장내바이러스 유행양상 및 분자유전학적 특성」《환경자원연구원보》제2권,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2009.
김언주 외,「제주도내 비브리오 패혈증 원인균 분포조사」《보건환경연구원보》제14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2003.
김언주 외,「제주도내 설사환자의 바이러스성 및 세균성 원인체 감염실태에 대한 역학조사」, 앞의 보고서.
김영권 외,『병원미생물학』, 수문사, 2008.
김오진,「조선시대 제주도의 기상재해와 관민의 대응양상」『제주지리론』, 한국학술정보, 2010.
김응빈 외 옮김,『토토라미생물학』, 바이오사이언스출판, 2014.
김종배 외,『병원미생물학』, 라이프사이언스, 2012.
김혁제 교주,『改正增補 天機大要』卷之下, 명문당, 2000.
대한역법연구소 편, 原本 影印版『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 대지문화사, 1981.
문무병,「제주도 도깨비당 연구」『 탐라문화』제10호, 1990.
심재면,「기후변화의 개념, 원인과 영향」, 2014년 기후해설사 과정, 2014. 6. 17.
오경미 외,「급성설사질환 유발원인 세균의 분리 및 특성」《보건환경연구원보》제22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2011.
오상진,『일반미생물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윤용택,「제주 생활문화 의식과 정체성」『제주생활문화사』, 제주문화원, 2014 출간예정.
윤용택,『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이기욱,「환경과 제주문화」『탐라문화』제1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이은주,「제주도 무의에 나타난 질병개념」『논문집』제13집,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1989.
이 증,『南槎日錄』,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01.
임동권,『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1989.
임진숙 외, 「제주도내 급성설사질환 유발원인 세균의 분리현황 및 특성분석」, 환경자원연구원보 제2권,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2009.
장정룡,『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집문당, 1988.
장주근,「제주도 무속문화의 지역성에 대하여」『제주도』14호, 제주도, 1963.
조성윤 외,『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진성기,「新舊間과 民俗信仰」,『국어국문학』34·35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7.
진성기,『제주도 금기어 연구사전』, 제주민속연구소, 1992.
진성기,『제주도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97.
진성기,『복을 비는 사람들』, 디딤돌, 2008.
천종식,『고마운 미생물 얄미운 미생물』, 솔, 2005,
한국천문대 편,『만세력』, 명문당, 2004.

현용준,「濟州島 巫神性格과 神統」『제주도』16호, 제주도, 1963.
현용준,「濟州島 巫俗의 疾病觀」『제주도』제21호, 제주도, 1965.
현용준 외,『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현용준,「濟州島 巫神의 形成」『탐라문화』창간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현용준,『제주도 마을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현용준,『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홍만선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국역 산림경제』I, I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홍석모,『동국세시기』- 강무학,『한국세시풍속기』, 집문당, 1990.
『기후변화이해하기VI- 제주의 기후변화』, 국립기상연구소·제주기상청, 2010.
『제주기후요람(1961-1990)』, 제주기상대, 1993.
『제주도지』하, 제주도, 1982.
『제주신당조사』(제주시권, 서귀포시권), 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 편, 2008~2009.
『한국기후편람』, 중앙기상대, 198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온라인정보>

기상청(http://www.kma.go.kr) 기국내기후자료<평년값자료(30년):1961-1990, 1971-1990, 1981-2010>
미생물학<세균학[Bacteriolog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83747&cid=44416&categoryId=44416)
林紹周, 『新刊理氣詳辯纂要三台便覽通書正宗)』
(http://www.ncc.com.tw/books/goods.php?id=6423
董德彰, 『增補參贊秘傳 天機大要]』
https://archive.org/search.php?query=creator%3A%22(%E6%98%8E)%E6%9E%97%E7%B4%B9%E5%91%A8%E8%BC%AF%22 참조.